

조이스의 『햄릿』, 프로이트와 라캉의 『햄릿』, 그리고 정신분석학을 넘어서: 『율리시스』에 나오는 스티븐 가족에 대한 가족시스템 치료적 접근

김 상 욱

I.

부권 (paternity) 주제는 오랫동안 조이스의 작품을 읽어내는 데 있어서 하나의 출발점이 되어왔다. 특히, 『율리시스』(*Ulysses*) 제9장 「스킬라와 카립디스」(“*Scylla and Charybdis*”)에서 펼쳐지는 스티븐 데달러스 (Stephen Dedalus)의 『햄릿』(*Hamlet*) 서설을 통해 본 셰익스피어의 가족관계 분석은 부권에 대한 조이스의 관점을 파악하는데 하나의 길잡이가 되어왔다. 스티븐은 아주 함축적인 몇 마디의 말로 어머니-아버지-아들의 삼자관계를 요약한다. “아마 인생에 있어서 유일한 진짜는 주격 소유격과 목적격 소유격[어머니의 아들에 대한 사랑; 아들의 어머니에 대한 사랑]으로서 아모르 마뜨리스[모성애]일 겁니다. 부권은 법률상의 허구인지도 모르죠. 아들이 꼭 아버지를 사랑해야 한다거나, 혹은 아버지가 꼭 아들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라도 있습니까?” (*U* 9.842-45).

정신분석 비평은 오랫동안 『율리시스』에 나타나는 이러한 가족간 관계에 주

목해 왔다. 셰크너(Mark Shechner)는 『밤거리의 조이스』(*Joyce in Nighttown*)에서 스티븐의 『햄릿』 읽기가 『율리시스』와 조이스 작품 세계를 이해하는 첩경이 된다고 믿었다. 그에 따르면, 『햄릿』과 『율리시스』를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는 가족관계이다: “『햄릿』은 『율리시스』와 마찬가지로, 가족에 대한 예술적[문학적] 접근이다; 『햄릿』은 가족을 신화와 실제 삶에 투사시키고 있다”(47). 셰크너는 또한 부권을 허구로 보는 스티븐식의 판타지를 프로이트(Sigmund Freud)의 “가족 로맨스”(family Romance)로 설명하고 있다(48). 예컨대, 셰크너식의 정신분석은 스티븐이 자신을 낳아준 아버지를 버리고 셰익스피어의 정신적 아들이 되고자 하는 것을 그의 어린시절 판타지로 읽고 있다. 말하자면, 『율리시스』에서 스티븐은 나르시즘과 현실의 판타지적 내면화 과정을 통해 어머니에 대한 죄의식과 위협적인 아버지의 범을 초월하는 셈이다. 매케이브(Colin Macabe) 또한 『제임스 조이스와 말의 혁명』(*James Joyce and the Revolution of the Word*)이라는 책에서 스티븐의 현실에 대한 판타지적 내면화, 말하자면, 그의 신경증적(neurotic)증상이 오이디푸스 단계에서 일어나는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자신과 경쟁자였어야 할 아버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결과라고 본다. “스티븐이 겪는 어려움이란 바로 그가 아버지의 위치를 점할 수 있는 인물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120). 『기호의 장막』(*The veil of Signs*)이란 책에서, 브리빅(Sheldon Brivic)은 스티븐의 『햄릿』 분석이 부자관계의 본질은 공한 것임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 말한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바로 부자관계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한 공에 바탕을 둔 양자관계 위에 이 세상이 서 있다”(110).

요약하자면, 프로이트식의 혹은 라캉식의 정신분석 이론을 빌어온 조이스 비평가들은 『율리시스』에 나타나는 스티븐의 『햄릿』 분석을 통해 두 가지를 강조한다. 첫째, 모든 압제적 부권을 초월하는 스티븐의 판타지는 오이디푸스 단계에서 그가 모방할 만한 적절한 대상의 부재, 즉 아버지의 부재에서 비롯된 신경증적 증상의 결과이다. 둘째, 엘만(Maud Ellmann)의 지적처럼, 소위 부계 또는 부권이라는 것은 명명(naming)에 따른 언어적 효과에 불과하며 그것의 기원이나 본질은 공허(void)하다는 것이다 (97). 『율리시스』에 나타나는 부권에 대한 이러한 정신분석적 접근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정작 스티븐 자신의 가족은 그들의 관심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말하자면, 메어리 데달러스(Mary Dedalus)와 사이먼 데달러스(Simon Dedalus), 그리고 스티븐과의 삼자관계는 거의 다뤄지지 않고 있다. 더군다

나, 『젊은 예술가의 초상』(*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성장기의 스티븐에게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존재는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라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오이디푸스적 가족관계에서는 설명이 불가능한 부분이다. 모자관계에서는 가혹하리만치 완고한 엄마였던 메어리는 철저히 가부장적 어머니이다. 반면에 아버지인 사이먼은 그야말로 부자관계에서 유명 무실한 존재로 남아있다. 특히, 『율리시스』에서 사이먼은 스티븐에게 생부 이상의 어떤 의미도 없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특히, 조이스 자신이 트리에스트(Trieste)에서 타향살이를 하던 시절 그가 가르쳤던 학생들을 대상으로 1912년 11월부터 1913년 2월까지 포폴라 대학(Universita Popolare)에서 12회에 걸쳐 셰익스피어의 『햄릿』에 관한 강연을 했다는 사실이다. 이듬해에 조이스가 『율리시스』집필에 들어갔다는 사실은 조이스 자신이 셰익스피어의 가족관계에 대해 매우 진지하게 관심을 가졌다는 것을 방증한다.

왜 조이스는 셰익스피어의 가족관계에 관심을 갖게 되었을까? 이 글은 프로이트가 분석한 『햄릿』, 라캉이 들여다 본 『햄릿』, 그리고 조이스가 읽은 『햄릿』을 비교해 보고, 정신분석학의 오이디푸스 모델이 짚어내지 못한 데들러스 부부간 갈등의 문제를 조명하는데 있다. 이러한 부부간 불화가 주목을 끄는 것은 바로 부모의 불화가 자녀의 정서형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메어리의 사이먼에 대한 애정의 상실은 그녀의 아들, 스티븐에 대한 집착으로 이어졌고, 이것이 바로 메어리의 스티븐에 대한 과도한 애정과 과잉보호적 감싸기로 나타난다. 메어리의 스티븐에 대한 과잉보호는 오히려 스티븐의 저항을 불러온다. 이처럼 가족구성원의 심리적, 또는 정서적 문제를 가족 전체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은 프로이트식의 정신분석학과 크게 대별된다. 조이스(또는 스티븐)의 『햄릿』 읽기에서 눈에 띄는 것은 바로 조이스 자신이 햄릿의 문제를 가족 전체, 즉 가족시스템의 문제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요컨대, 스티븐은 『율리시스』 제9장 「스킬라와 카립디스」에서 거투르드(Gertrude)가 클로디우스(Claudius)와 근친혼을 하는 것과 유령이 되어 나타난 햄릿 왕이 이를 비난하는 것을 셰익스피어 자신의 그의 바람기있는 아내 앤(Ann Hathaway)에 대한 은밀한 분노의 표출로 읽고 있다. 그러므로 스티븐에게 있어서 햄릿의 광기는 침예한 감정싸움을 벌이고 있는 이러한 부모사이에 끼어 어느 쪽도 선택할 수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이 가져온 심각한 정서장애인 셈이다.

조이스 자신의 『햄릿』 읽기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부부간 갈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조이스의 『햄릿』 읽기가 중요한 이유는, 그가 『햄릿』을 읽어내는 방식이 『율리시스』에 나타나는 스티븐의 가족관계를 비추는 거울이기 때문이다. 사이먼과 메어리 사이에는 매우 미묘한 부부간 갈등이 존재한다. 예컨대, 『프로테우스』("Proteus") 에피소드에서 스티븐은 샌디마운트 해변을 거닐며 외삼촌인 리치(Richie Goulding)를 보러갈까를 고민한다. 문득 아버지 사이먼이 외가집인 굴덩가를 조롱했던 것을 기억해 낸다. 이는 『영웅 스티븐』(*Stephen Hero*)에서 사이먼의 그의 처가에 대한 냉소적 반응과도 일맥상통한다. “네 엄마는 네 엄마식으로 말할게다, 너 알지, [사이먼] 테덜러스가 아들에게 말했다. 피는 못 속인다니까. 네 외가집 식구들은, 너 알지, 세상에, 모르는 게 없어, 손목시계 큰 태엽 만드는 방법까지 알고 있을게다. 정말로.” (*Stephen Hero* 216). 이 글은 『햄릿』에 대한 정신분석학적 접근과 조이스의 가족시스템적 접근을 비교해 보고, 『율리시스』에 나타나는 스티븐의 가족관계를 모자관계에 중점을 두어 분석하고 있다. 가족시스템적 관점에서 볼 때, 『율리시스』에 나타나는 모자간 분쟁은 부부간 갈등과 긴밀한 연관이 있는 가족 전체의 문제라는 것이 이 글의 결론이다.

II. 조이스의 『햄릿』

조이스의 『햄릿』 강연이 무엇이었는지는 그의 강연이 채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알 길이 없다. 다행히도 그의 강연 내용을 짐작케 해주는 강의노트가 남아 있어서 그의 『햄릿』 강설의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 조이스의 『햄릿』 강연과 『율리시스』의 「스킬라와 카립디스」장에서 펼쳐지는 스티븐의 『햄릿』 분석이 연관되어 있음은 명백하다. 1975년 여름호 특집 『제임스 조이스 쿼터리』(*James Joyce Quarterly*)는 조이스의 트리에스트 『햄릿』 강연과 관련된 두 개의 강의노트를 활자화 했다. 퀴리안(William H. Quillian)이 주석을 붙인 조이스의 강의노트는 두 가지가 주목을 끈다. 첫째, 조이스는 『햄릿』이라는 문학작품속에서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의 영국인들 실제 삶의 자취를 찾아낸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조이스는 여러 권의 셰익스피어 전기를 참조하였는데, 특히, 윌슨(John Dover Wilson)의 『셰익스피어 시대의 영국에서의 삶』(*Life in Shakespeare's England*), 브랜디스

(George Brandes)의 『윌리엄 셰익스피어』란 책으로부터 많은 부분을 인용하여 『햄릿』의 각 장면에 주석을 달 때 활용한다. 둘째, 그 주석에서 눈에 띄는 것은 조이스가 특히, 오페리아(Ophelia)와 관련된 장면에 많은 주석을 달고 있다는 점이다 (1막 3장, 2막 2장, 3막 2장, 4막 5장).

오페리아와 관련된 장면에서 조이스는 엘리자베스 시대에 나타나는 부모-자식간 관계에 대해 주목하면서, 폴로니우스(Polonius)와 오페리아의 관계를 구약성서의 사사기에 나오는, 딸을 신의 제물로 바칠 수밖에 없었던 비정한 아버지 입다(Jephthah)에 비유한다 (Quillian 50-51쪽). 여기에서 조이스가 강조하는 것은 오히려 자식에게 해가 될 수 있는 부모의 과잉보호이다. 예컨대, 폴로니우스는 종국적으로 입다가 되고 만다. 오페리아에 관해서는 『자코모 조이스』(Giacomo Joyce)에서도 조이스 자신이 다시 언급한다.

난 내 말에 귀를 기울이는 트리에스트[학생들]에게 셰익스피어에 대해 설명을 해주었다: 나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햄릿은 말야 온후하거나 꾸밈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예의가 깎듯했어, 유일하게 폴로니우스에게만은 무례하게 대했지. 아마도, 원한에 사무친 이상주의자였던 햄릿은 자신이 사랑했던 여자[오페리아]의 부모에게서 딸을 자신들과 닮은 꼴로 만들려는 과장된 시도를 읽어낼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이지 않는가? (10)

오페리아에 관한 주석을 붙이면서, 조이스는 또한 엘리자베스 시대의 부모-자식간 관계에 대해 베이컨(Francis Bacon)을 인용하기도 한다. “[부모-자식간 관계에서] 부모의 슬픔 또는 두려움은, 그들의 기쁨과 마찬가지로, 아무도 모른다. ... 자식을 갖지 못한 부모에게서 자식에 대한 관심이 지대해 질 수밖에 없다” (Quillian 44-45). 조이스가 오페리아에 대한 폴로니우스의 지나친 간섭을 베이컨의 부성에 혹은 모성에 일반론으로 설명하는 배경에는 부모(폴로니우스)의 자식(오페리아)에 대한 지나친 애정에 대한 햄릿식의 항의가 암시되어 있다. 『율리시스』의 「스킬라와 카립디스」 에피소드에서 스티븐은 셰익스피어의 비극과 희극 작품들 속에 그의 실제 가족관계가 어떻게 투영되었는지를 추론한다. 예컨대, 스티븐의 『햄릿』이론에 따르면, 『햄릿』에 나오는 유령 아버지인 햄릿 왕과 그의 아들인 햄릿 왕자의 이야기는 결국 셰익스피어 자신과 그의 요절한 아들, 햄릿(Hamnet Shakespeare)의 희미한 레적이다. 스티븐의 『햄릿』가설에서 또 하나 눈에 띄는 것

은 셰익스피어와 그의 아내 앤 사이의 불화이다. 스티븐이 논증한 『햄릿』가설은 세 권의 셰익스피어 전기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Schutte 153-77 참고), 그에 따르면, 『햄릿』은 바람을 피우는 아내 앤에 대한 셰익스피어의 응징을 간접반영하고 있다. “『햄릿』5막 1장에서 그가[왕의 유령이] 그녀를 [자신의 아내를] 불명예로 간주하는 것을 사실이 아니라고 말한다면, 한 번 말해봅시다, 왜 셰익스피어가 결혼한 날로부터 무덤에 들어가기까지 34년 동안 자신의 아내 앤에 대해 한 마디도 안했는지 말이죠” (U 9.671-74). 스티븐에 따르면, 『햄릿』에서 유령으로 등장한 왕이 거투르드의 클로디우스(Claudius)와의 동침을 힐난하는 것은 결국 아내 앤의 부정에 대한 셰익스피어 자신의 고발인 셈이다.

조이스의 트리에스트 강의노트와 『율리시스』에 나타나는 스티븐의 『햄릿』가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은 가족간 관계에서 일어나는 어떤 이해관계에 부모가 자식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부모-자식간 유대관계는 때로는 부모의 자식에 대한 과잉보호로, 때로는 부모의 자식에 대한 기대치 (부모 자신의 욕심)로 나타난다. 부모의 자식에 대한 과잉보호는 오펜리아와 폴로니우스의 경우에 해당되고, 부모의 자식에 대한 기대는 왕의 환영과 햄릿의 관계에서 드러난다.

『햄릿』을 읽으면서 갖게 되는 한 가지 의문점은 왜 망자인 햄릿 왕이 아내인 거투르드에게 직접 나타나지 않는 것인가이다. 왜 왕의 유령은 직접 거투르드에게 자신이 억울하게 살해되었다는 것을 직접 말하지 않았을까? 또한 왜 상을 당한 거투르드는 남편에 대한 애도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서둘러 클로디우스와 결혼식을 올렸을까? 햄릿도 아버지의 상도 치르기 전에 서둘러 결혼식을 올린 어머니를 원망한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니오베처럼—저러한 눈물이 진짜라면, 왜, 우리 엄마는—

오 신이시여, 이성의 잣대로 생각하고 싶어하는 역겨운 인간도 그보다는 더 오래 슬퍼했으련만—내 삼촌과, 내 아버지의 동생—그렇지만 내가 헤라클레스와 아무 관련이 없는 것처럼, 더더욱 나와는 아무관련도 없는 아버지, 한 달도 안 돼서

이 세상에서 어떤 식으로든 정당화되지 못할 눈물의 소금기가

우리엄마의 수척해진 눈에서 채 가시기도 전에

엄마는 혼인을 했다—오 얼마나 비난을 면치 못할 신속성이던가! (I.ii.149-56)

이는 분명, 햄릿 왕과 왕비인 거투르드 사이에 부부간 불화가 매우 심각했음을 암시한다. 부모 중 한 쪽이 자녀와 결탁하여 다른 부모에게 대항하는 방식은 부부간 불화가 존재하는 가족간 관계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이다. 말하자면, 남편 또는 아내가 상대방에 대한 분노를 아이를 통해서 간접 발산하는 방식이다. 『햄릿』 3막 4장에서 유령으로 다시 등장한 햄릿 왕은 아들 햄릿을 충동질하여 부정을 저지른 거투르드의 양심의 가책을 이끌어 내면서 그녀에게 심리적 고통을 가하려 한다.

잊지말거라! 이번 출현은

거의 무더진 너의 목적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함이니라.

그렇지만, 보거라, 네 엄마가 놀라서 앉아 있는 꼴을 보거라.

오, 그녀의 태연한 외면과 괴로워하는 내면 사이로 파고 들어라.

몸뚱아리는 나약할 지라도 강한 의지를 품거라.

가서, 네 엄마한테 말해라, 햄릿. (III.iv.110-14)

햄릿의 심리적 고통은 바로 양부모의 감정싸움에 끼어 있다는 점이다. 그에게 딜레마는 햄릿 왕과 거투르드 모두 자신이 사랑하는 부모라는 사실이다. 뉘프(John V. Knapp)의 표현을 빌자면, 그의 목에는 양부모가 옴아 맨 올가미에 걸려있다. “불쌍한 햄릿은 부모가 옴아맨 올가미에 걸려있는 듯하다, 그리고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햄릿은 한 쪽 부모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한 쪽 부모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거나 심리적 위축을 줄 수 밖에 없는 처지가 된다—양부모를 사랑하는 아들에게는 건딜 수 없는 상황이다” (213). 햄릿 왕, 거투르드, 그리고 그들의 아들 햄릿으로 이어지는 삼각관계에서 그들은 서로 맞물린 톱니바퀴처럼 서로에게 감정적 생체기를 남기며 신음하고 있다. 햄릿의 미치광이 시늉은 시늉이 아니라, 그가 점점 양부모의 불화에 연루되어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징후이다.

III. 프로이트와 라캉의 『햄릿』

프로이트의 『햄릿』 읽기는 오이디푸스 가족 모델에 따른다. 프로이트는 그의 『햄릿』 분석에서 햄릿의 신경증적 우유부단성에 초점을 맞춘다. 그의 의문은 왜

햄릿은 자신의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빼앗아 간 클로디우스에게 즉각적으로 보복하지 않는가이다.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에 따르면, 햄릿에게 클로디우스는 아버지를 제거하고 어머니를 독차지하려는 무의식적 욕망을 대리 충족시켜 준 존재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자신의 분신이라 할 수 있는 클로디우스를 쉽게 죽일 수 없었다. 오히려 클로디우스를 통해 햄릿은 자신의 어머니를 취하려는 무의식적 욕망이 들켜버렸기 때문에, 클로디우스의 존재는 자신의 죄의식만 일깨울 뿐이다. 프로이트는 『햄릿』에 관한 글을 쓰면서, 브랜디스의 『윌리엄 셰익스피어』를 참고했는데, 그는 『햄릿』이 셰익스피어의 아버지인 존 셰익스피어(John Shakespeare)가 죽은 직후 쓰여졌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말하자면, 프로이트에게 있어서 햄릿은 아버지의 죽음을 기다리는 셰익스피어의 어릴적 무의식적 욕망의 발현인 셈이다 (Freud SE vol. 4, 264-66). 프로이트는 햄릿의 광인 증상을 히스테리아 증상으로 진단하기도 한다.

라캉은 햄릿의 정신이상상을 강박 신경증으로 분류한다. 햄릿의 강박 신경증적 증상이 가져온 비극은 바로 그가 동일시할 대상의 부재이다. 라캉에 따르면, “햄릿은 자신을 위한 어떤 목표를 설정하는 데 실패했는데, 이러한 목표라는 것은 대상을 말한다” (Lacan 25-26). 즉, 자신이 뭘 원하는지 모르고 있다는 것, 바로 이것이 햄릿식 행동방식이라 할 수 있는 결정적 행동의 끊임없는 지연을 설명해 준다. 이러한 동일시할 대상의 부재는 햄릿이 끊임없이 타자의 욕망에 의존하는 이유이다. 라캉에 따르면, 이것은 또한 오펔리아가 햄릿에게 경멸의 대상이면서 애착의 대상인 이유이다. 오펔리아는 소타자(other: object a) 혹은 남근(phallus)으로 대체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햄릿의 끊임없는 타자 의존성, 즉 햄릿에게 동일시할 대상이 부재한다는 것은 숭배의 대상으로서의 햄릿 왕과 경멸의 대상으로서의 클로디우스 사이에서 햄릿이 누구도 선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극단적으로 드러난다 (Lacan 12).

라캉의 『햄릿』분석에서 눈에 띄는 것은 햄릿과 부재하는 아버지간의 관계이다. 프로이트는 그의 「애도와 슬픈감정」(“Mourning and Melancholy”)이라는 글에서 애도로 인한 슬픔이야말로 자신이 동일시할 대상에 대한 흥미를 잃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보고 있다.

깊은 애도라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것에 대한 반작용인데, [슬픈 감정을 느낄 때와 마찬가지로] 이것에는 똑같은 심리적 고통과 외부세계에 대한 관심의 소멸—그것이 사랑했던 사람을 추억하는데 관련이 없는 것이라면—새롭게 사랑할 만한 대상을[사랑했던 사람을 대체할 만한] 추구할 의욕을 잃게 되고 그 사람과 관련되지 않은 일에는 일체의 관심을 끄게 된다. (Freud SE vol. 14, 244)

여기에서 프로이트는 슬픔과 애도증상을 말하면서 왜 사랑하는 대상을 잃은 환자가 더 이상의 새로운 대상에 애착을 갖지 못하게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라캉이 보기에, 햄릿의 내면에서 아버지란 존재는 하나의 판타지로서 이중의 미를 갖고 있다. 하나는 그가 동일시할 이상적 대상으로서의 아버지이고, 또 다른 하나는 경멸과 저주의 대상으로서의 아버지이다. 그러므로, 라캉에 따르면, 햄릿에게 햄릿 왕과 클로디우스는 둘이 아니라 하나의 아버지인 셈이다. 따라서, 햄릿은 부재하는 숭배의 대상으로서 햄릿 왕과 자신을 동일시하고자 하지만, 그는 이미 유령에 불과하다. 현존하는 왕은 그가 동일시할 대상이 아니라, 그가 배척하고 미워해야 할 대상이다. 말하자면, 햄릿에게 아버지는 동일시의 대상이자 극복해야 할 대상¹⁾이고 모방의 대상이자 적살의 대상인 것이다.

-
- 1) 라캉은 여기에서 아버지의 또 다른 비유로서 “왕”을 부재와 현존을 동시에 내포한 기표로 대체한다. 미켈 보르쉬-야콥슨(Mikkel Borch-Jacobsen)은 「프로이트와 라캉에서 오이디푸스 문제」 (“The Oedipus Problem in Freud and Lacan”)라는 글에서 프로이트의 난제였던 동일시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극복의 대상인 아버지의 모순성을 라캉이 “아버지의 이름(the Name of the Father)”란 개념으로 해결하는 방식을 설명한다. 그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프로이트에 따르면 남자아이나 여자아이 모두 태어나면서 생존을 위해 어머니라는 대상에 애착을 갖게 된다. 생후 몇 개월 후에 남근기(phallic stage)를 지나면서 남자 아이는 엄마를 유아적 성애의 대상으로 바꾸게 된다. 이때 오이디푸스 콤플렉스가 나타나는데, 말하자면, 엄마를 차지하고 아버지를 제거하려는 무의식적 욕망이다. 오이디푸스 콤플렉스가 정상적으로 해결되면, 아이는 자신의 동일시의 대상을 엄마로부터 아버지로 바꾸게 된다. 전오이디푸스단계(pre-oedipal phase)에서 아이는 아버지를 저주의 대상으로 삼게 됨과 동시에 엄마가 원하는 남근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을 아버지와 동일시해야 한다. 그러나 초자아(superego)의 개입으로 아버지는 아이가 자신과 동일시 하는 것을 원천 금지한다. 즉, 아이에게 성애의 대상으로서 엄마는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오이디푸스기를 지나고 난 후, 아이는 이성애자(heterosexual)로 정상발달하면서 아버지를 자신이 동일시할 대상으로 여기게 된다. 여기서 보르쉬-야콥슨이 프로이트의 모순이라고 지적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자신과 같은 성(same sex)의 부모에게 동일시하는 것이 어떻게 아이가 동성애자(homosexual)가 아닌 이성애자(heterosexual)로 정상발달하게 되는 기제가

프로이트와 라캉의 오이디푸스 모델에 의한 『햄릿』 읽기는 햄릿의 정서장애를 모두 햄릿 개인의 문제로 돌리고 있다. 요컨대, 이들의 분석은 모두 햄릿의 정신질환에 대한 분석이고, 그러한 정신질환의 원인은 모두 햄릿 개인에게 있다. 프로이트는 햄릿의 우유부단성에서 어머니를 취하려는 그의 오이디푸스적 충동과 그러한 충동으로 인한 죄의식이 가져온 신경증적 증세를 읽어냈다. 라캉은 햄릿의 우유부단성에서 아버지의 부재가 가져온, 자기도취적 동일시 대상의 상실로 인한, 정신병적 증상을 읽어냈다. 프로이트와 라캉의 『햄릿』 읽기가 던지는 하나의 의문은 왜 햄릿이 문제인가라는 것이다. 자신의 아내의 부정을 아들에게 고발하면서 유령이 되어 햄릿을 충동질하는 아버지는 문제가 아닌가? 엘리자베스 왕조 당시에는 직계가족과의 결혼도 근친상간으로 규정되었는데 햄릿의 친삼촌과 근친상간을 저지른 그의 엄마는 문제가 없는가? 왜 프로이트와 라캉은 가족구성원들이 햄릿에게 가한 정서적 폭력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가?

IV. 『율리시스』에서 스티븐과 데어리의 분쟁

『율리시스』 제9장 「스킬라와 카립디스」는 『햄릿』이라는 문학작품에 대한 각기 다른 비평이 첨예하게 부딪치는 장이다. 제9장은 시인 러셀(George Russell), 수필작가 이글린톤(John Eglinton), 아일랜드 국립도서관 사서인 리스트(Lyster), 그리고 스티븐간에 벌어지는 『햄릿』을 어떻게 해석할까에 대한 공방전이다. 리스트는 『빌헬름 마에스테르』(*Wilhelm Meister*)에서 나타나는 괴테(Wolfgang von

되는가이다. 그러므로 이는 하나의 해결할 수 없는 모순이다: “그러므로 프로이트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는 심각하고도 중대한 모순에 빠지게 된다” (274). 라캉은 이러한 프로이트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전오디푸스 단계에서 동일시의 대상이지만 동일시가 금지된 아버지(즉, 억압적 초자아)와 오이디푸스 단계 이후, 자신이 동일시할 대상인 아버지(즉, ego-ideal 모방의 대상)를 분리한다. “하지만 라캉은, 동일시의 대상으로서 “이상자아”와 억압적 “초자아”를 분리하는데, 이것은 프로이트가 전혀 시도하지 않았던 것이다 (275-76). 라캉은 이 양자를 구분하여, 상상계의 남근(imaginary phallus: ego-ideal)과 상징계의 남근(symbolic phallus: superego)으로 부른다. 그러므로, 라캉에게 있어서 남근은 남자아이가 정상발달을 하기 위해 모방과 동일시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거세(castrated)된, 말하자면 상징적 남근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상징계의 남근은 금지된 상상계의 남근이다” (279).

Goethe)의 『햄릿』 강설을 높게 평가하면서, 스스로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찬 현실 앞에 햄릿이 너무도 어린 감수성의 소유자였음을 강변한다 (U 9.2-4). 이에 반해, 러셀은 햄릿을 현실속의 인물이 아닌 플라톤식의 이데아(Ideas)가 구현되는 “형태가 없는 정신의 본질” (formless spiritual essences, U 9.49)로 보아야 한다고 우수한다. 이들과 달리 스티븐의 『햄릿』 독법은 『햄릿』을 통해 셰익스피어의 가족 관계를 엿보는 것이다. 스티븐은 햄릿 왕의 유령을 셰익스피어 자신과 등치시킨다. 그러므로 스티븐의 『햄릿』 독법은 햄릿 왕과 햄릿 왕자와의 관계를 셰익스피어와 그의 요절한 아들 햄릿간의 관계로 환치시키면서, 『햄릿』이라는 작품속에 은유적 암시로만 존재하는 셰익스피어의 실제 삶의 윤곽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의 작품 『햄릿』에서 왕 햄릿의 유령으로 분장한] 셰익스피어는 아들에게 말하고 있다, 그의 영혼의 일부인 아들, 왕자인, 젊은 햄릿 그리고 그의 육체의 일부인 아들에게, 스트래트포드에서 죽은 그 햄릿 셰익스피어, 그 햄릿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던 햄릿, 작품속에서 영원히 살아있으리라” (U 9.171-73).

스티븐의 『햄릿』 가설에서 또 하나 두드러지는 것은 셰익스피어와 그의 아내 앤과의 부부관계이다. 그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셰익스피어와 앤의 결혼은 한 마디로 26살로 셰익스피어보다 8살 연상이었던 앤이 순진하고 애틋 청년이었던 셰익스피어를 성적으로 유혹한 사건이다. 스티븐은 증거로 『비너스와 아도니스』(Venus and Adonis)에서 비너스가 아도니스를 성적 매력의 대상으로 쫓는 장면을 예로 든다. 그리고 이러한 앤의 성적 도발성이 셰익스피어의 성적 자신감의 상실로 이어졌다. 둘째, 셰익스피어와 앤과의 불화설이다. 셰익스피어는 결혼 후 상당기간을 그와 앤이 함께 살았던 스트래트포드를 떠나 홀로 런던에 머물렀는데, 이러한 셰익스피어의 장기 외유가 암시하는 것은 결국 부부간 애정의 결여를 말해준다. 스티븐의 『햄릿』 가설은 또한 앤의 부정(infidelity)을 상정한다. 스티븐은 증거로 『햄릿』 1막 5장에서 유령으로 등장한 햄릿 왕이 거투르드를 부정한 아내로 낙인찍는 장면을 예로 든다. 스티븐에 따르면, 이러한 부부간 불화는 셰익스피어가 결혼한 직후부터 죽을때까지 공식석상에서 한 번도 그의 아내 앤을 언급한 적이 없다는 사실에서도 발견된다 (Schutte 153-77 참조). 스티븐의 『햄릿』 독법이 가정하는 최대의 가설은 셰익스피어의 남동생 리차드(Richard Shakespeare)와 앤과의 염문설이다. 스티븐은 『리차드 3세』(Richard III)에 등장하는 글로스터(Gloucester)의 곱사등이 리차드 공작이 사실은 셰익스피어의 남동생인 리차드

(Richard Shakespeare)의 위장으로 보고 있다. 요컨대, 스티븐은 『리처드 3세』에서 리처드 공작이 그의 형인 에드워드 4세(Edward IV)의 아내, 즉 형수인 앤(Anne)을 빼앗는 것은 바로 셰익스피어의 가족 간 관계에서 그의 남동생 리처드와 아내 앤(Ann Hathaway)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위장해서 보여주는 것이라 설화한다.

조이스의 트리에스트 『햄릿』 강연과 마찬가지로, 스티븐의 『햄릿』 읽기도, 그것이 셰익스피어 자신의 가족관계이던, 혹은 극중 가족관계이건, 철저히 가족간 관계 읽기라고 할 수 있다. 왜 조이스, 그리고 스티븐은 이토록 가족관계에 천착했을까? 조이스와 스티븐의 『햄릿』 읽기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조이스 자신의 작품을 읽어내는 하나의 단서가 그로부터 마련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던컨(Edward Duncan)은 조이스 혹은 스티븐의 『햄릿』 가설이 얼마나 학술적 근거가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으며 정작 주목해야 할 것은 『햄릿』 가설이 비추고 있는 스티븐의 가족관계라고 보았다.

셰익스피어 비평가들이 스티븐의 [햄릿과 셰익스피어에 대한] 의견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우리가 알 바 아니다(그리고 아무도 스티븐의 의견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여기서 우리의 관심은 스티븐의 [햄릿에 대한]의견이 스티븐과 그의 가족관계를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이다.
(127)

던컨이 말했던 것처럼, 조이스와 스티븐의 『햄릿』 읽기가 관심을 끄는 것은 그것이 스티븐과 그의 가족간 관계를 비추주는 하나의 거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던컨식의 읽기는 햄릿의 가족관계와 셰익스피어의 가족관계 사이의 접점을 찾아 스티븐의 가족관계에 연결짓는 방식이다. 예컨대, 던컨은 엘리엇(T. S. Eliot)식의 개관적 상관물(objective correlative)의 관점에서 햄릿의 가족관계와 스티븐의 가족관계간의 상징적 대응관계를 짚어냈다. 그의 해석에 따르면, 스티븐의 어머니는 거투르드에 해당하고, 햄릿의 배신당한 아버지 햄릿 왕은 스티븐이 그의 정신적 아버지라고 추종하고 있는 그리이스 신화속의 테덜러스에 해당한다. 또한, 던컨은 『햄릿』에 나타나는 햄릿왕자와 거투르드간의 모자관계와 스티븐과 메어리간의 모자관계가 닮은꼴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말하자면, 햄릿왕자가 그의 어머니와 클로디우스간의 결혼으로 인해 어머니로부터 배신을 당했다면, 더블린이라는 울가미에서 벗어나 파리로 탈출한 스티븐이 임종을 지켜달라는 메어리의 요청

을 받고 귀국할 수 밖에 없는 것이야말로 어머니로부터 아들이 배신을 당하는 극적인 장면이라고 본다. 그러나 작품과 작품간의 상징적 대응관계를 찾아내는 던컨식의 분석은 조이스 작품에서 가장 진지하게 논의되어야 할 관계인 스티븐과 메어리의 모자(mother-son)관계를 조명하는데 한계가 있다.

스티븐과 메어리의 관계는 한마디로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는 아들과 이에 자신의 입장을 끝까지 강요하는 완고한 어머니와의 관계이다. 이러한 극한으로 치달는 양자 사이의 격한 감정은 『율리시스』 제15장 「씨시」(“Circe”) 에피소드에서 스티븐이 그의 정신착관중에 나타난 어머니에 대한 발작적 반응에서 알 수 있다. 이 장면에서 스티븐은 어머니의 환상을 쫓아내기 위해 들고 있던 물푸레나무 지팡이로 갈빗집의 상들리에를 산산이 부숴버린다(U 15.4243-45). 이러한 상극의 모자관계는 조이스 작품 전편을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이다.

『더블린 사람들』(*Dubliners*)의 “죽은 사람들”(“The Dead”)에서 외가를 방문한 가브리엘(Gabriel)은 벽에 걸린 그의 어머니의 사진을 바라본다. 어머니의 사진을 보며 가브리엘은 그의 아내 그레타(Gretta)와의 결혼을 결사반대했던 죽은 어머니에 대한 한 맺힌 기억을 반추한다(186-87). 『젊은 예술가의 초상』에서 스티븐은 메어리의 부활절 예배에 참석하라는 요구를 끝까지 거부한다(239). 그는 또한 절대로 어머니를 따르지 않겠노라고 맹세한다(239). 『영웅 스티븐』에서도 스티븐은 불온서적을 본다는 이유로 메어리와 분쟁을 벌인다. 또한 메어리는 부활절 예배에 참가하지 않은 스티븐을 책망하고 스티븐은 자신의 불참을 정당화한다(131-36). 『유랑자들』(*Exiles*)에서도 모자간 분쟁은 계속된다. 리차드 로윈(Richard Rowan)은 그의 어머니가 죽을 때까지 화해하지 못했다(23).

하지만, 조이스의 트리에스트 『햄릿』 강연에서 드러나는 것은 부모-자식간에 일어나는 작용 반작용의 방식, 말하자면 상호작용 방식에 조이스가 주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조이스의 주목이 시사하는 것은 가족 구성원이 서로에 대한 기대치 의해 영향을 주고 받는, 이른바 감정적 압박은 가족 전체의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조이스는 자신의 어머니 메어리(Mary Joyce)가 죽고 난 직후, 아내 노라(Nora Joyce)에게 보낸 편지에서 자신의 엄마를 가족의 피해자로 간주한다.

어떻게 내가 우리 집 하면 생각나는 그러한 것들을 좋아할 수 있었겠는가? 우리 집은 간단히 말하자면 돈을 있으면 있는 대로 다 써버리는 습성으로 인해

파멸한 중산층의 본보기였다. 그리고 그걸 내가 배웠다. 생각해 보니, 우리 엄마는 천천히 죽어 가셨던 것 같다. 우리 아버지가 막 대한 것도 그랬고, 수 년 동안 계속된 고생에다, 엄마를 대하는 내 태도도 냉소적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직설적인 것도 있었다. 관에 들어가 있는 엄마를 보니—엄을 앓아 수척해진 창백한 엄마의 그 얼굴—그때 난 내가 한 명의 피해자의 얼굴을 보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그리고 난 엄마를 피해자로 만든 우리 가족체계에 저주를 퍼부었다. 우린 17인 가족이었지. 내 남동생들과 여동생들 모두 나에게 별 의미가 없는 존재들이다. 남동생 딱 한 명만 날 이해할 수 있다. (*Letters II*, 48)

조이스가 자신의 가족관계를 예시한 이러한 관찰이 암시하는 것은 개인과 주변환경, 말하자면 개인과 개인간의 의사소통 방식과 상호작용 방식을 관찰하는 것이 그 개인의 정서적 장애를 이해하는 하나의 길잡이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조이스의 이러한 관찰은 내피어(Augustus Y. Napier)가 가족치료(family therapy)를 시행하면서, 프로이트식의 개인 내면의 정신지형 분석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가족 전체의 정신병리적 징후를 발견하면서 느꼈던 놀라움과도 일맥상통한다. “프로이트의 환자 사례를 읽어보면서, [정서] 장애가 있는 환자에게는 반드시 [정서] 장애 가족이 있다는 사실을 그가 간과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 난 놀라울 따름이다” (41).

『율리시스』는 멀리건(Buck Mulligan)이 메어리의 임종을 지키지 않은 스티븐의 양심을 추궁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망할 놈같으니, 이 자식아, 죽어가는 네 엄마가 그렇게 부탁을 했으면, 무릎을 꿇었어야지, 벅 멀리건이 말했다” (U 1.91-92). 『젊은 예술가의 초상』에서 스티븐의 불효를 책망한 크랜리(Cranly)와 마찬가지로 멀리건의 이러한 비난은 스티븐으로 하여금 임종 후 홀연히 그의 꿈에 나타나 뭔가 추궁이라도 하려는 듯한 표정으로 말없이 서 있었던 그 초췌한 물골의 어머니를 기억하게 한다. 이러한 어머니의 모습과 멀리건의 추궁은 하루 종일 스티븐의 의식 한 켠을 지배한다. 「써시」 에피소드에서 죽은 어머니는 스티븐의 의식에 환영으로 다시 나타난다. 어머니의 환영에 맞서 스티븐은 자신의 죄의식을 애써 부인한다. “사람들은 내가 엄마를 죽였다고 해, 엄마. 멀리건은 자꾸 나에게 엄마의 기억을 떠올리게 해서 기분을 언짢게 하구. 그렇게 한 것은 암이지 내가 아니야. 그것은 운명이었대구” (U 15.4186-7). 메어리의 환영은 『햄릿』에 등장하는 햄릿 왕의 유령과도 같이 아픈 환부를 후벼파듯 스티븐의 죄의식을 집요하게 들춰낸다.

“늪우치거라, 스티븐. ... 저승에서도 난 널 위해 기도를 하고 있단다. 밤 늦게까지 머리를 쓰고 나면 배가 고플테니까 달리더러 쌀죽을 쑤어달라고 하거라. 오, 내 아들이야, 내 딸아들, 내 뱃속에 있을 때부터, 몇 년을 널 애지중지 했단다” (U 15.4198-4204). 아들의 배은망덕을 늪우치게 하려는 어머니 메어리의 집요한 추궁에 맞서 스티븐은 『젊은 예술가의 초상』에서처럼(117) 결연한 의지로 어머니의 말을 따르지 않겠노라고 선언한다. “엄마의 부탁을 들어줄 수 없어요” (U 15.4228).

스티븐과 메어리의 의사소통 방식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가해지는 힘에 비례해서 더 크게 반동하는 용수철처럼, 메어리의 스티븐에 대한 기대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스티븐은 더 큰 반동으로 엄마로부터 튕겨져 나가려 한다는 점이다. 메어리는 스티븐에게 자신이 그를 얼마나 애지중지 키운 자식이었는지를 상기시키면서, 자신의 기대치에 맞게 행동해 줄 것을 무언으로 요구하지만, 스티븐은 그 모정이라는 이름으로 가해지는 어머니의 속박에서 벗어나려 하고 한다. 스티븐은 메어리를 매우 이성적으로 대하는 듯 하지만, 그 역시 어머니의 완고함에 맞서 감정적으로 반발한다. 왜 메어리는 큰 아들인 스티븐에게 이렇게 집착하는 것일까? 또한, 왜 스티븐은 어머니에 대해 그토록 강하게 반발하는 것일까?

같은 성의 부모-자식 관계, 즉, 부자간 또는 모녀간 갈등을 가설로 내세우고 있는 오이디푸스 가족 모델의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모자간 갈등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다. 설로웨이(Frank J. Sulloway)은 가족관계를 다윈의 진화생물학적 관점에서 분석했는데, 그의 요지는 아이의 출생순서가 곧 그 아이의 성격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다윈(Charles Darwin)의 자연도태와 적자생존의 원칙을 적용한 설로웨이식의 부모-자식간 관계에 따르면, 아이들은 부모의 마음에 들기 위해 서로 경쟁을 벌인다. “형제자매관계에 있는 아이들은 부모로부터 육체적[발육], 감정적[사랑], 그리고 지적인[교육]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서로 경쟁을 벌인다” (21). 이를테면, 먼저 태어난 아이와 나중에 태어난 아이는 부모의 관심을 끌기 위해 서로 상이한 전략을 이용한다는 것이다. 보통, 먼저 태어난 남자아이가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하게 되는데, 이렇게 장남에게 강탈당한 부모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빼앗아 오기 위해 나중에 태어난 아이들은 좀 더 적극적이고 개방된 성격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반면, 장남 또는 장녀는 그들의 형제자매 관계에서 부모 행세를 하려 하기 때문에 매우 권위적이고 보수적인 성격을 갖게 된다 (Sulloway

55-79). 스티븐은 전형적인 장남의 표본이다. 그는 특히 메어리의 편애의 대상이다. 형제자매 관계에서도 매우 이기적이며 권위적이다. 예컨대, 『율리시스』 제10장 「배회하는 바위들」(“The Wandering Rocks”)에서 메어리와 사이먼의 15자녀 중 맏이인 스티븐은 프랑스어를 배우려는 여동생 딜리(Dilly)에게 도움을 못주는 데 대해 미안한 마음을 가지면서도 자신이 동생들을 금전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함께 파멸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U 10.858-880). 스티븐은 또한 장남이나 장녀에게 흔히 나타나듯 매우 고집이 센 성격을 갖고 있는데, 스티븐의 이러한 외고집적 일면은 바로 그의 메어리에 대한 거부 선언, 즉 “*Non serviam*”에서 단적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스티븐의 완고한 성격이 메어리의 장남에 대한 과도한 애정과 상충을 일으키면서 모자간 갈등을 낳는다.

보웬(Murray Bowen)은 엄마의 자녀에 대한 과도한 관심과 걱정이 어떻게 아이에 대한 집착으로 발전하고 중국에는 아이의 정신분열증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해 연구했다. 정신분열증상을 보이는 아이들의 가족관계를 연구한 결과 보웬은 매우 흥미 있는 사실을 발견했는데, 이들 아이의 부모들이 대부분 부부간 애정이 없는 이름만 부부라는 사실이다. 보웬의 연구 중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이들의 엄마는 애정 없는 부부생활을 보상이라도 받으려는 듯 아이에게 모든 정성을 기울이며 광적으로 집착했다는 사실이다 (Bowen 352-66). 또한 보웬은 엄마의 과잉보호 속에 자란 아이들이 대체로 매우 내성적이라는 점을 밝히면서 이러한 엄마의 과잉보호가 아이의 정신질환 증세를 유발한다고 보고 있다. 스티븐도 메어리의 과잉보호 속에 자랐음을 암시하는 대목이 『율리시스』 뿐만 아니라 『젊은 예술가의 초상』과 『영웅 스티븐』에서도 발견된다. 이를테면, 『젊은 예술가의 초상』에서 메어리가 이미 대학생으로 다 큰 아이인 스티븐의 얼굴을 직접 씻겨준다든지 (174-75), 『영웅 스티븐』에서 사이먼이 스티븐을 게으르고 태만한 아이로 낙인찍자, 메어리가 스티븐 편에 서서 그를 변호해 준다든지(216) 하는 것들은 모두 메어리의 장남에 대한 편애를 방증하고 있다. 아울러 『율리시스』에서는 메어리와 사이먼 사이에 부부간 금실이 좋지 않았다는 것을 암시하는 대목도 있다. 예컨대, 제3장 「프로테우스」(“Proteus”)에서 스티븐은 외삼촌과 외숙모를 보러갈까를 고민하면서 외가를 방문한다는 소리를 사이먼이 들었으면 그가 했음직한 말을 떠올린다. 스티븐은 사이먼이 굴딩가를 경멸하는 것을 상상한다. “세상에 이렇게 슬픈 일이 있어, 내가 장가를 간 가문의 꼴이라니” (U 3.61-69). 제11장 「사이렌즈」

(“Sirens”)에서 블룸은 사이먼가와 굴딩가간의 불화를 떠올린다 (U 11.789-90). 결국, 아이에 대해 과도한 애정을 쏟는 어머니와 이름뿐인 아버지 혹은 남편, 그리고 과잉보호된 아이, 이것이 바로 데덜러스 가족의 가족간 상호작용 방식이다. 이러한 스티븐의 가족관계는 보웬이 말한 정서적 장애 가족의 특징과 일치한다. “가족간 관계를 모두 관장하는 대가 센 어머니와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환자 [아이], 그리고 가족간 관계에서 주변에 머물고 있는 아버지라는 기본적인 패턴이 우리가 연구한 11가족 모두에게 나타나고 있다” (Bowen 363). 그러므로 스티븐의 반종교적 기질은 어떤 의미에서는 과잉보호 어머니에 대해 자율권을 주장하는 아이의 저항과 통한다. 이러한 모자간 분쟁이 바로 스티븐을 아일랜드 보수 종교에 정면으로 맞서게 하는 그의 외골수적 사고와 연관관계가 있다.

V.

킴볼(Jean Kimball)은 『율리시스』의 제9장 「스킬라와 카립디스」야말로 조이스의 정신분석에 대한 이해의 긴밀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에피소드라고 말한다. 킴볼이 증거로 제시하는 것은 스티븐의 “새로 등장한 비엔나 학파” (U 9.780)에 대한 언급이다. 이로부터 킴볼은 「스킬라와 카립디스」 에피소드에서 나타나는 정신분석의 논제들을 읽어낸다. 그에 따르면, “정신분석 논제의 징표들이 「스킬라와 카립디스」에 아주 많은데” (39), 이러한 징표중 대표적인 것이 스티븐의 근친상간에 대한 언급이다. 그러나 스티븐이 정신분석과는 다른 차원에서 근친상간을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근친상간을 언급하는 대목에서 스티븐은 “새로 등장한 비엔나 학파의 근친상간과는 다른 관점에서 글을 썼던” (U 9.779-780) 성 토마스(Saint Thomas)를 원용한다. 스티븐이 인용한 성 토마스의 근친상간 개념은 정신분석에서 말하는 오이디푸스적인 가족간 근친상간이 아니고, 아우구스티누스적인 민족간 근친상간의 개념을 말하려는 것이다(Gifford 237). 이는 스티븐이 셰익스피어가 유대인이라는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는 자신의 주장을 펴면서 나온 하나의 결다리 논쟁으로서 유대인의 민족적 배타성을 꼬집는 말이다. 그러므로 조이스가 당시 새롭게 등장한 정신분석학에 조예가 깊었을 것이고, 실제로 그의 작품속에 정신분석 논제들이 밀바탕에 깔려있다는 정신분석 비평가들

의 주장은 하나의 가설일 뿐이다.²⁾ 오히려 조이스는 가족관계를 개인의 근친상간에 대한 무의식적 욕망의 관점에서 접근하기보다는 식수(Hélène Cixous)가 말한 것처럼 가족 전체가 연관되는, 말하자면 “하나의 살아 움직이는 집단으로서 그리고 개인 간 관계들의 네트워크로서” (9) 이해했다.

스티븐을 그가 속한 가족의 관계성 차원에서 조명해 보는 것은 개인의 무의식이나 잠재의식에 대한 프로이트나 라캉식의 분석과는 다르다. 이렇게 가족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는 것의 가장 큰 특징은 그것의 전체적 관점(holistic perspective)이다. 바로 부분과 전체 간 상호작용, 가족 구성원과 구성원들 사이의 상호작용, 또는 개인과 사회가 어떻게 영향을 주고 받는지에 대한 이해이다. 바로 이것이 『삶의 거미줄』(*The Web of Life*)에서 카프라(Fritjof Capra)가 시스템적 사고의 특징으로 지적한 관계성에 대한 고찰이다. 카프라는 이 책에서, 개인이란 그 자체로 어떤 본질적 특성도 없다고 말한다. 그 개인이 어떤 사람과 그리고 어떤 주변환경과 교류를 일으키는가, 말하자면, 어떻게 주변환경과 관계되는가에 따라 그 개인의 특성이 달리 나타난다고 한다(Capra 37). 조이스의 트리에스트 『햄릿』 강연이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조이스 자신도 이러한 가족시스템적 관계성에 많은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엘만이 그의 조이스 전기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조이스 자신의 가족관계와 스티븐의 가족관계 사이의 연관성이 주목받는 것도 이때문이다.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적 치료는 치료의 대상이 전적으로 환자 개인이지만, 가족 시스템 치료(family systems therapy)는 환자의 가족 전체가 치료의 대상이 된다. 카프라는 이러한 시스템적 사고를 우리의 세계관에 있어서 중대한 변화로 간주하고 있다. 말하자면, 이러한 사고의 패러다임 변화는 “바로 데카르트와 뉴턴의 기계론적 세계관에서 전체론적이고 생태학적인 세계관으로의 이동이다” (5). 카프라가 고찰하고 있는 것처럼, 이러한 전체성은 개별적인 것들의 관찰을 통해서 는 절대로 파악될 수 없다.

2) 엘만(Richard Ellmann)은 그의 책 『조이스의 의식』(*The Consciousness of Joyce*)에서, 조이스가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을 읽었다는 흔적을 찾아낸다. 그러나 엘만도 지적했듯이, 조이스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에 대해 이견을 보였다. “조이스는, 당시, 존스와 프로이트의 오이디푸적 상황이라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다” (57).

시스템적 관점에 따르면, 유기체, 즉 살아 움직이는 시스템의 본질적 특성들은 그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개별요소들로 쪼개지면 없어지고 마는, 전체가 되었을 때 비로소 나타나는 특성들이다. 이러한 전체성이 나타내는 특성들은 그 개별요소들 간의 상호작용과 관계맺기를 통해 나타난다. 이러한 시스템적 특성들은, 실체에 있어거나 이론상으로는, 그 시스템이 그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개별요소들로 분해되었을 때는 없어지고 만다. (29)

카프라의 이러한 시스템적 관점은 식수가 조이스 작품에 나타나는 가족을 그것의 구성원들이 역동적으로 끊임없이 연루되면서 상호 교류하는 “하나의 살아 움직이는 집단”으로 파악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이러한 가족 시스템적 관점에서 볼 때, 스티븐과 메어리의 분쟁은 데틸러스가의 가족 구성원들이 모두 한테 엉거 붙어 춤을 출 때 만들어지는 모자간 독특한 춤사위에 비유된다. 만약 이러한 가족 춤판의 형태가 달라지면 모자간 춤사위의 형태도 달라질 것이다. 자식과 가족에게 무관심한 남편, 애정없는 부부관계, 그것의 결과로 나타나는 엄마의 자식에 대한 지나친 기대치와 자식에 대한 감정적 속박, 엄마의 감정적 속박에서 벗어나려는 자식의 욕망과 그것의 결과로 나타나는 죄책감, 이러한 가족춤판이 데틸러스가의 가족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다.

VI.

모방이 문학적 재현 행위의 본질이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모방이론은 지난 세월동안 사실주의의 몰락과 함께 역사속으로 사라졌다. 포스트모더니즘의 등장과 더불어 구조주의와 후기구조주의의 여파는 문학을 더 이상 사회적 조건이나 경험된 현실 따위와 같은 현실세계를 비춰주는 거울로 보기를 거부했다. 문학작품에 대한 경험주의적 접근을 차단하고 문학, 다시말해, 서사라는 형태를 띠게 하는 내재적 규범을 찾아내려는 구조주의 또는 후기구조주의는 모든 이야기를 한 문장의 연장으로 간주했다. 이 과정에서 문학작품속의 등장인물들은 철저히 기능적인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다. 작품속의 등장인물들은 언어의 문법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졌는데, 이를테면, 문장 단위를 구성하는 요소들 중 하나인 주어의 기능을 수행하는 역할로 격하되었다. 예컨대, 레비스트로스(Claude Lévi-Strauss)는 오이

디푸스 신화를 그것과 유사성을 띤 관련신화들의 맥락에서 살피면서 그러한 신화들에서 전개되는 유사 사건들을 유형별로 분류하였다. 이 과정에서 레비스트로스는 오이디푸스를 존속살인이라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 이외에 어떤 의미도 부여하지 않았다(Lévi-Strauss 864).

최근들어 문학적 등장인물들을 우리의 실제 삶과 관련된 경험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하려는 시도들이 다시 나타나고 있다. 스토리(Robert Storey)는 『미메시스와 인간이라는 동물』(*Mimesis and the Human Animal*)이라는 책에서, 문학적 재현의 근간에는 “어떤 문화든, 그리고 어떤 역사든, 관계없이 작동하는 하나의 기저”(103)가 있는데, 이것은 바로 “개인과 개인간 치열한 감정적 결속”(102)이라고 말한다. 말하자면, 모든 문학적 등장인물들(문학적 재현행위)은, 그것이 저자가 만들 어낸 가상의 등장인물이든, 혹은 실제 있었던 인물을 극화한 것이던 간에, 때로는 적으로 때로는 친구로, 때로는 연적으로 때로는 연인으로 얽히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은 결국 타인과의 관계맺기에서 구현되고 있는 적대감과 친근감이라는 인간의 보편감정의 표현인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예술가는 인간의 행위를 모방한다”(60)라고 말한다. 그는 또한 역사와 문학(시)을 구분하면서 “시가 다루는 것은 보편적인 것들과 더 연관성이 있고, 역사가 다루는 것은 개별적인 것들과 더 연관된다”(65)라고 말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이러한 보편적인 것들은 결국 인간의 보편정서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는 『수사학』에서 청중에게 설득력있는 웅변을 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보편적 감정에 호소해야 한다고 했는데, 『율리시스』를 읽는 기쁨중의 하나는 바로 시대와 민족을 초월해서 우리의 가족관계와 닮은 폴인 아일랜드인들의 가족관계를 읽어내고 그 속에서 인류의 보편 정서를 감지해 낼 때가 아닌가 싶다. 이러한 의미에서 스티븐의 가족관계를 성적본능의 관점이나 무의식 혹은 판타지의 관점 혹은 기호학적 코드의 관점에서 보지 않고, 그것을 조이스 자신의 가족관계와 묶어, 개인과 개인이 감정적으로 얽히게 되는 방식을 읽어내는 것도 읽는 재미를 덜 반감시키는 방법중의 하나가 아닐까 싶다.

(경희대)

Works Cited

- Aristotle. *Poetics. The Critical Tradition: Classic Texts and Contemporary Trends*. Ed. David H. Richter. New York: Bedford/St. Martin's, 2007.
- Bowen, Murray. "A Family Concept of Schizophrenia." *The Etiology of Schizophrenia*. Ed. Don D. Jackson. New York: Basic Books, 1960. 346-72.
- Brivic, Sheldon. *The Veil of Signs: Joyce, Lacan, and Perception*. Chicago: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1991.
- Borch-Jacobsen, Mikkel. "The Oedipus Problem in Freud and Lacan." *Critical Inquiry* 20 (1994): 267-82.
- Capra, Fritjof. *The Web of Life: A New Scientific Understanding of Living Systems*. New York: Anchor Books, 1996.
- Cixous, Hélène. *The Exile of James Joyce*. Trans. Sally A. J. Purcell. London: John Calder, 1976.
- Duncan, Edward. "Unsubstantial Father: A Study of the Hamlet Symbolism in Joyce's *Ulysses*." *University of Toronto Quarterly* 19 (1950): 126-40.
- Ellmann, Maud. "Polytropic Man: Paternity, Identity and Naming in *The Odyssey* and *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 *James Joyce: New Perspectives*. Ed. Colin MacCabe.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82. 73-104.
- Ellmann, Richard. *The Consciousness of Joyc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77.
- Freud, Sigmund. *Interpretation of Dreams. The Standard Edition of the Complete Psychological Works of Sigmund Freud*. Trans. James Strachey. Vol. 4. London: Hogarth, 1959.
- _____. "Mourning and Melancholia." *The Standard Edition of the Complete Psychological Works of Sigmund Freud*. Trans. James Strachey. Vol. 14. London: Hogarth, 1959. 243-58.
- Gifford, Don. *Ulysses Annotated: Notes for James Joyce's Ulysse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8.

- Joyce, James. *Dubliners*. Ed. Robert Scholes and A. Walton Litz. New York: Viking, 1967.
- _____. *Exiles: A Play in Three Acts*. Intro. Padraic Colum. New York: Viking, 1951.
- _____. *Letters of James Joyce*. Vol. 2. Ed. Richard Ellmann. New York: Viking, 1966.
- _____. *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 Ed. Chester G. Anderson. New York: Viking, 1964.
- _____. *Stephen Hero*. Ed. Theodore Spencer. New York: New Directions, 1963.
- _____. *Ulysses: The Collected Text*. Ed. Hans Walter Gabler. New York: Random House, 1986.
- Kimball, Jean. "Growing Up Together." *Joyce Through the Ages: A Nonlinear View*. Ed. Michael P. Gillespie. Gainesville: University of Florida Press, 1999.
- Knapp, John V. "Family Games in Imbroglia in *Hamlet*." *Reading the Family Dance: Family Systems Therapy and Literary Study*. Ed. John V. Knapp and Kenneth Womack. Newark: University of Delaware Press, 2003.
- Lacan, Jacques. "Desire and the Interpretation of Desire in *Hamlet*." *Yale French Studies* 55-56 (1977): 11-52.
- Lévi-Strauss, Claude. "The Structural Study of Myth." *The Critical Tradition: Classic Texts and Contemporary Trends*. Ed. David H. Richter. New York: Bedford/St. Martin's, 2007.
- MacCabe, Colin. *James Joyce and the Revolution of the Word*. London: MacMillan, 1978.
- Napier, Augustus Y. and Carl Whitaker. *The Family Crucible: The Intense Experience of Family Therapy*. New York: Harper & Row, 1978.
- Schutte, William M. *Joyce and Shakespeare*. Archon: New York, 1971.
- Shakespeare, William. *Hamlet*. Ed. Harold Jenkins. Routledge: New York, 1993.

- Shechner, Mark. *Joyce in Nighttown: A Psychoanalytical Inquiry into Ulysse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4.
- Storey, Robert F. *Mimesis and the Human Animal*. Evanston: Northwestern University Press, 1996.
- Suloway, Frank J. *Born to Rebel: Birth Order, Family Dynamics, and Creative Lives*. New York: Longman, 1996.
- Quillian, William H. "Shakespeare in Trieste: Joyce's 1912 *Hamlet* Lectures." *James Joyce Quarterly* 12.1 (1975): 7-63.

Abstract

Family Systems Therapy and *Ulysses* Beyond Psychoanalysis

Sang-Wook Kim

Psychoanalytic criticism has read as a kind of Freudian "family romance" Stephen's desertion of his family in *Ulysses*—the "family romance" as appearing in a pre-oedipal stage in which the child suspects the authenticity of his parents. His nonchalant manner in the family relations and his encounter with Bloom are, in the psychoanalytical view, seen as the new formation of family on his own. In particular, a lot of friction between him and his mother Mary has been due to the absence of a paternal model he should identify with and the role of the mother as a paternal substitute in the oedipal stage.

It is Joyce who provides a clue to the understanding of the mother-son dispute in *Ulysses*. His *Hamlet* lectures given to his students in Trieste feature Polonius's overprotective fatherhood and Ophelia's helplessness. In *Ulysses*, Joyce as Stephen also divulges the marital conflict between King Hamlet thinly disguised as Shakespeare and Gertrude as Ann Hathaway. In short, Joyce's *Hamlet* lectures focus on the way in which family members are emotionally interconnected. Unlike the Freudian and Lacanian interpretations of *Hamlet*, which mainly look into the fantasy of Hamlet as a neurotic or a psychotic and examine the oscillation between his biological father as an object to spurn and his stepfather as an object to identify with, Joycean *Hamlet* takes into account Hamlet as torn in the marital conflict between Shakespeare and Gertrude.

Such a family-systemic view as Joycean *Hamlet* exegesis offers an intersychical picture of Stephen's persistent antipathy against his demanding mother, which is very different from an intrapsychical one like the psychoanalytical view. No matter how moderate the emotional divorce between Simon and Mary is,

it plays a significant role in developing the familial transactional patterns of father's peripheral function in the family matter, mother's overprotective motherhood, and child's claim for his independence from the overly demanding mother.

■ Key words: *Ulysses*, *Hamlet*, family systems therapy, psychoanalysis, Lacan, family romance, Darwin (『율리시스』, 『햄릿』, 가족시스템 치료, 정신분석, 라캉, 가족 로맨스, 다윈)

필자 소개

김철수

영국 University of Warwick 영문과 석사, 조선대학교 영문과에서 박사학위 취득. 학위 논문은 “James Joyce의 소설에 나타난 화해의 추구: *Dubliners*, *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과 *Ulysses*를 중심으로.” 현재 전주대학교 교양학부에 재직중. charles@jj.ac.kr

윤희환

서울대학교 영문과에서 박사학위 취득. 학위 논문은 “Radiant Triviality: Epiphany in Joyce.” 저서로는 『간이역에서』(대학사, 2003), *Like a Fish, Like a Lizard* (대학사, 2003)가 있음. 현재 강남대학교 교양학부에 재직중. justiny@kangnam.ac.kr

김 석

미국 New York University 영문과에서 박사학위 취득. 학위 논문은 “Joyce and the Post-Love Affair: Literature, Globalization and the Question of the Universal.” 현재 연세대학교 영어영문학과에 출강중. askpeer@yonsei.ac.kr

민태운

미국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at Carbondale 영문과에서 박사학위 취득. 학위 논문은 “Subjectivity, Language, and Society in Joyce's *Dubliners*, *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 and *Ulysses*.” 저서로는 『제임스 조이스의 소설』(전남대학교 출판부, 2001), 『조이스의 더블린: “더블린 사람들” 읽기』(대학사, 2005) 등이 있음. 현재 전남대학교 영문과에 재직중. taeun@chonnam.ac.kr

김상욱

미국 Northern Illinois University에서 박사학위 취득. 학위논문은 “The Parent-Offspring Conflict in Joyce's Fiction.” 현재 경희대학교와 덕성여대에 출강중. kimswook@hotmail.com